

# 향후 100년간 슈퍼볼 트렌드 예상 - 홍주형

# **1. 주요 활용하는 프로그램 / 자료 / 기준 날짜.**

**\* 엑셀 2019 : Forecast 함수. 엑셀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, 가장 쉽기 때문임. 가장 쉬운 것을 두고, 굳이 코딩을 해야 할까? 특히 100년치 예상을 할 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예측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 하나를 하는 게 낫다.**

**\* 자료 : 구글 트렌드 2004년 1월 ~2019년 3월 월별 지수. 참고로 말하자면 100을 기록한 적은 2016년 2월, 슈퍼볼 50 이었음.**

**\* 작성 날짜 : 2019년 3월 14일.**

## 2. 주요 활용하는 함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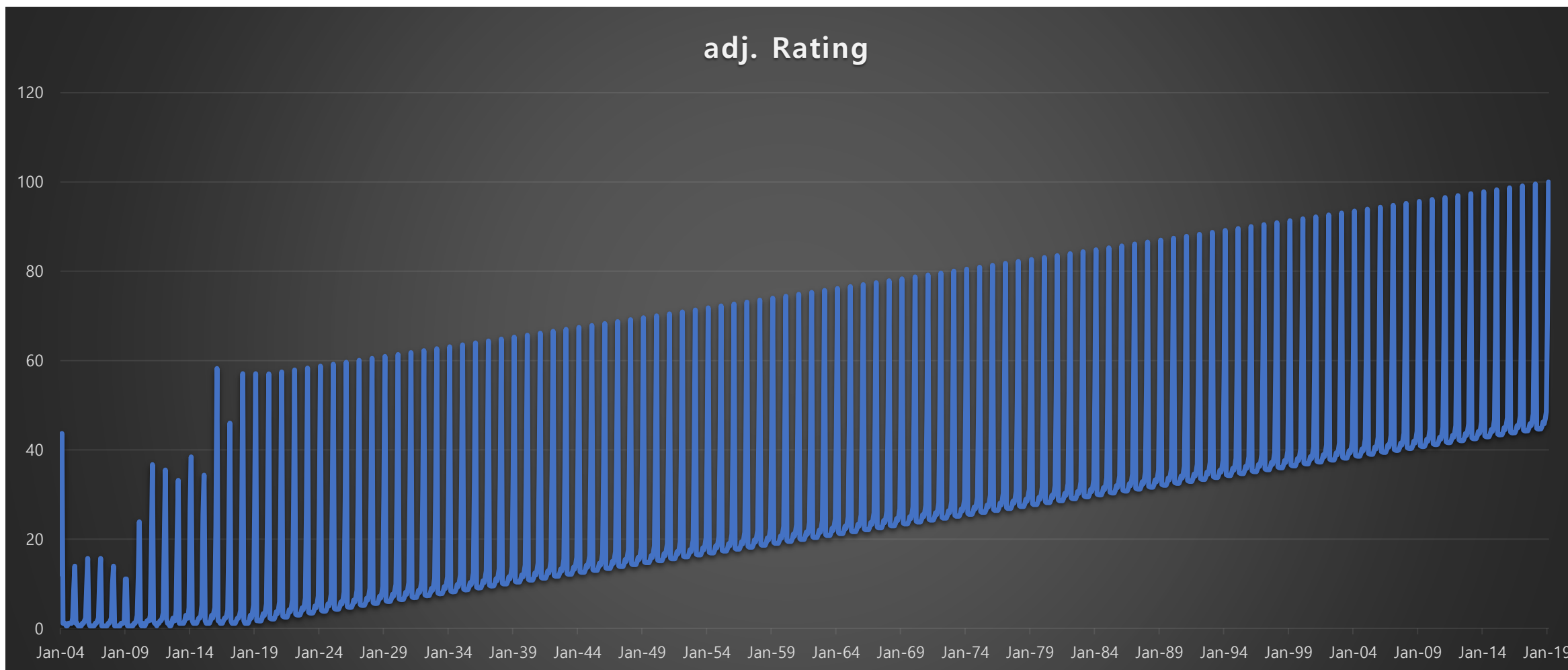
**\* Forecast1 : 2004~2019년까지 신뢰도 99.99% 에 있는 중앙값을 반영함. 시계열은 12개월로 체크.**

**\* Forecast2 : 2010년 1월 ~ 2019년까지 신뢰도 99.99% 에 있는 중앙값을 반영함. 시계열은 12개월로 체크.**

**\* Forecast3 : 2015년 1월 ~ 2019년까지 신뢰도 99.99% 에 있는 중앙값을 반영함. 시계열은 12개월.**

**\* Forecast4 : 2018년 1월 ~ 2019년까지 신뢰도 99.99% 에 있는 중앙값을 반영함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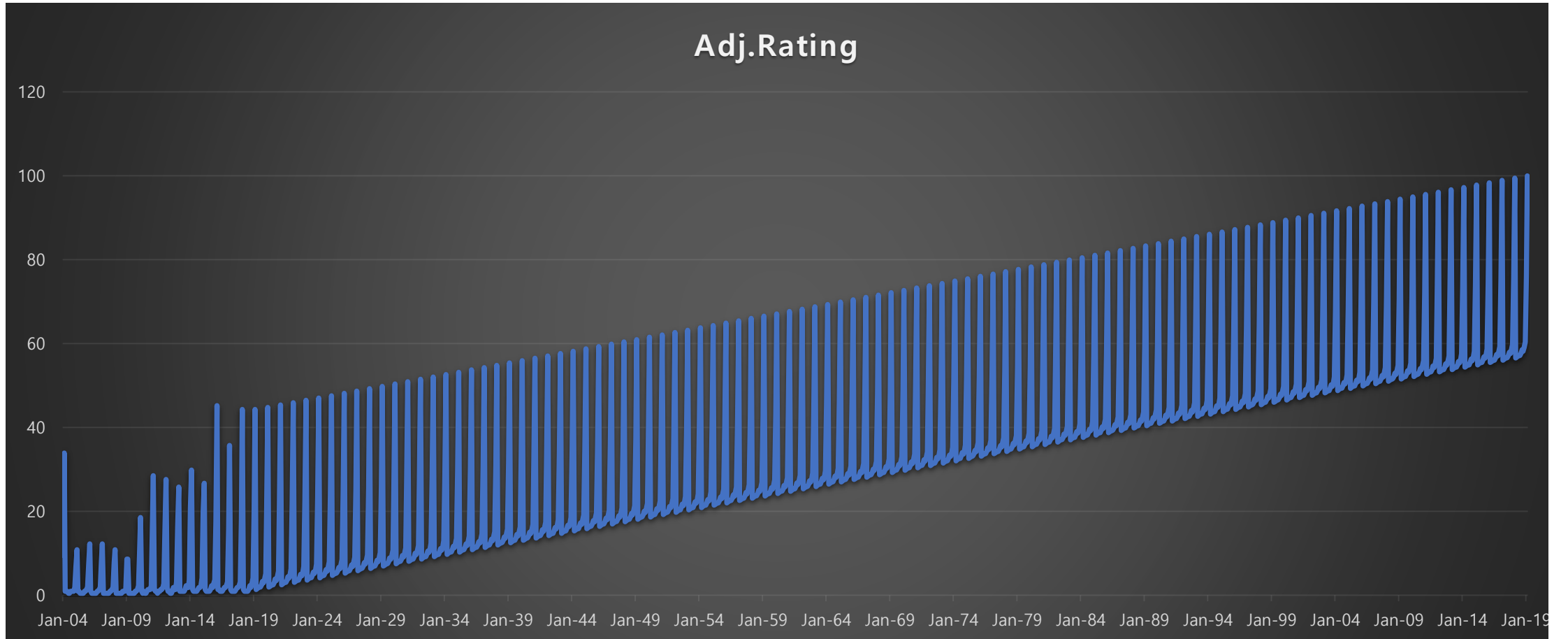
### 3. Forecast1 로 본 100년치 전망.



### 3. Forecast1 로 본 100년치 전망 분석

- \* 시즌이 진행되면 될 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막달 (9월)을 기점으로 내림새를 타다가 11, 12, 1, 2월 내내 올라가는 경향이 확인 되었고, 특히 슈퍼볼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트렌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, 끝나면 검색량이 확 떨어지는 경우를 반복함.**
- \* 그래도 가면 갈 수록 2월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. 가장 높은 달은 2119년 2월 (100), 2118년 2월 (99.569), 2117년 2월 (99.132) 순으로 되어있음.**
- \* 2016년 2월의 슈퍼볼보다 더 트렌드 지수가 높은 다음 2월은? 2023년 2월. 2023년 2월은 58.330 으로 2016년 2월에 비해 (58.213) 조금 더 높을 수 있다.**

# 4. Forecast2 로 본 100년치 전망 분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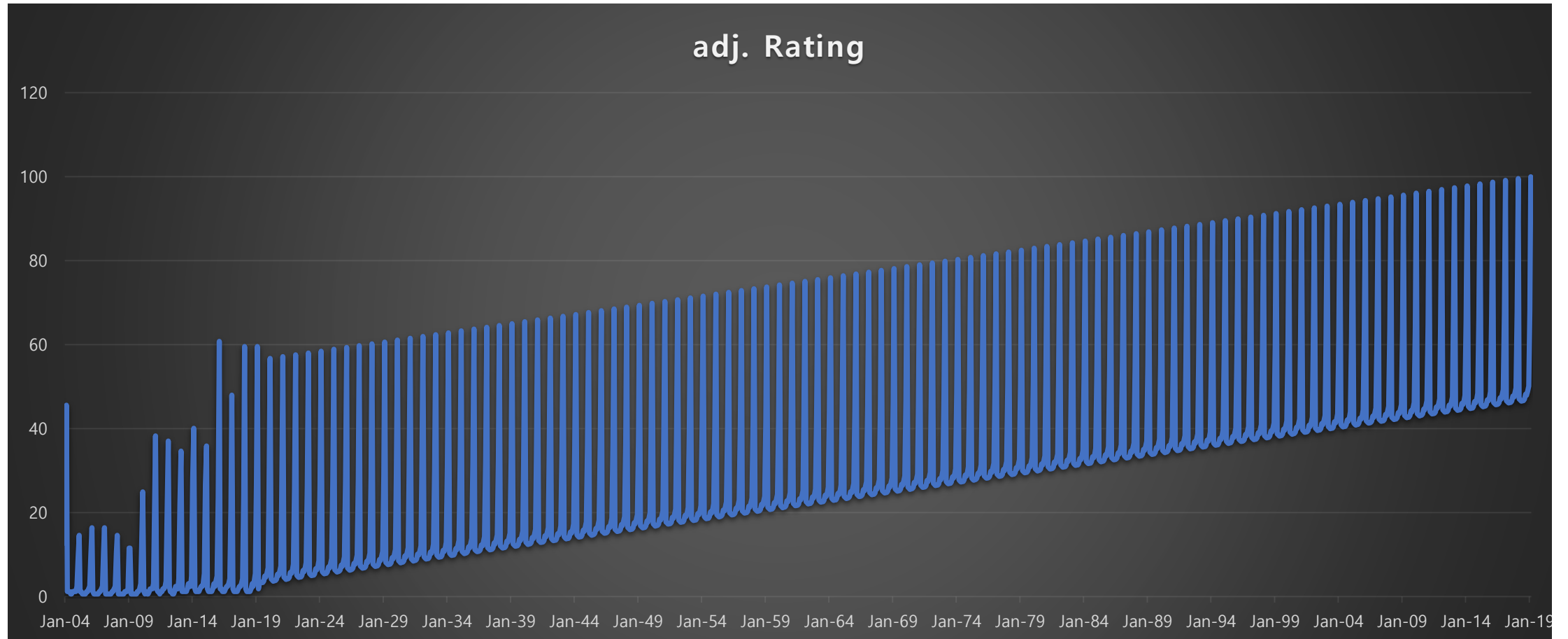
## 4. Forecast2 로 본 100년치 전망 분석

**\* Forecast1 과는 다르게, 2021년 2월이 2016년 2월 보다 트렌드 지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**이 됨. 2016년 2월 지수가 45.204, 2021년 2월 45.336.

**\* 가장 높은 지수는 2119년 2월 (100), 또한 2119년 2월이 가장 높고 (100), 그 다음은 2118년 2월 (99.442), 2117년 2월 (98.884) 순이었음. 99이상이 Forecast1은 3개였지만, Forecast2 는 2개였음.**

**\* 2096년 8월 부터 2016년 2월의 트렌드 지수를 앞지르게 되는 경우가 나옴.**

# 5. Forecast3 로 본 100년치 전망 분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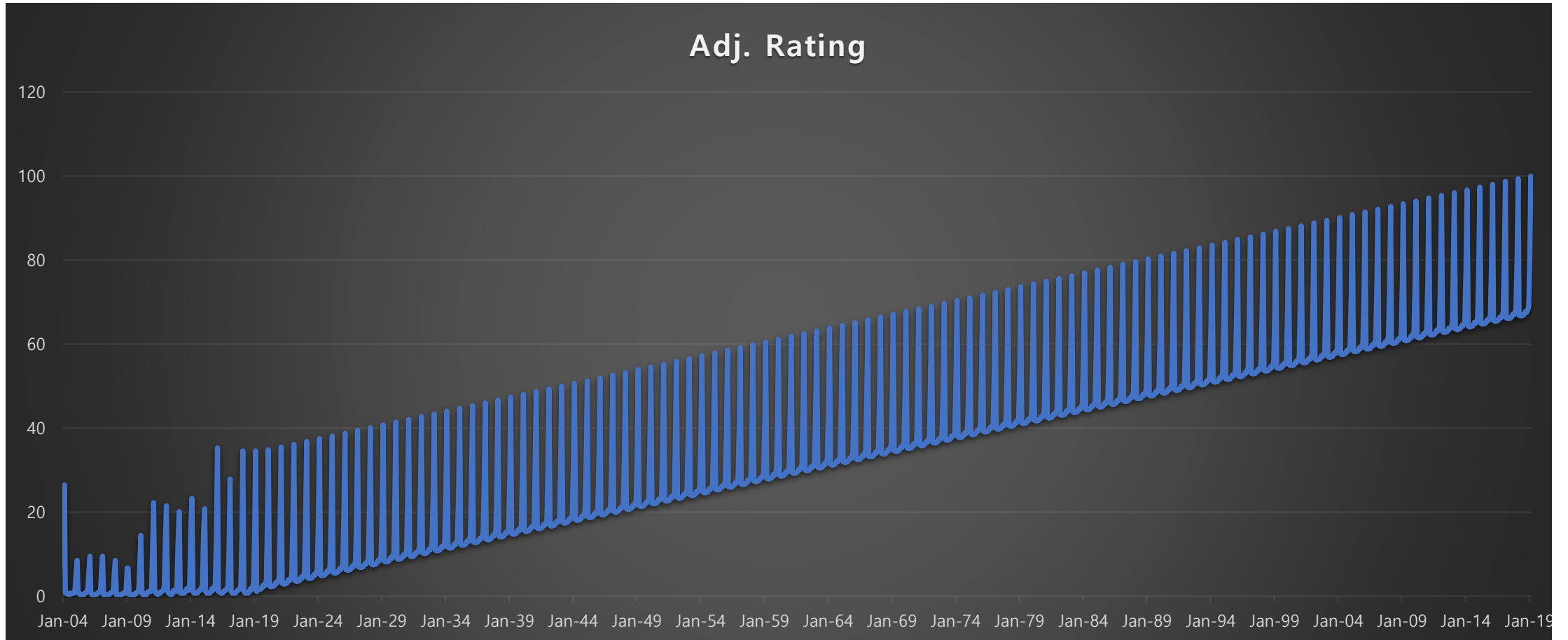


## 5. Forecast3 로 본 100년치 전망 분석

**\* 2016년 2월 보다 더 뛰어난 최초의 2월은? 2030년 2월. 즉 지금 부터 11년이 더 지나야 한다.**

**\*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슈퍼볼의 트렌드 지수는 2016년에 비해 1.646배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(중앙 값 기준). 즉 Forecast1, Forecast2 에 비해 트렌드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 Forecast1 은 최고치가 2016년 2월에 비해 1.718배 더 높았고, Forecast2 는 최고치가 2016년 2월에 비해 2.212배 더 높았다.**

# 6. Forecast4 로 본 100년치 전망 분석



## 6. Forecast4 로 본 100년치 전망 분석

**\* 가장 흥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 (중앙값 기준) : 2119년 2월 100으로 잡을 때, 2016년 2월은 35.292, 즉 2119년 2월은 2016년 2월에 비해 2.833배 더 높음.**

**\* 2070년 시즌 부터 매달 마다 35.292, 즉 2016년 2월 수치를 능가함. 앞선 함수, 즉 Forecast1, Forecast2, Forecast3 에 비해 더 빨리 달성함.**

**\* 특히 Forecast4 버전은 Forecast2 중에서 제일 높았던 2119년 2월에 비해 높은 지수가 39개월 정도로 높았다.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1월 지수가 Forecast2 중에서 제일 높은 지수를 앞지른 것도 5개가 있었음.**

## 7. 결론 - 리그 시스템을 바꾸자?

- \* 어느 예상 틀을 쓰던 간에, 시즌과 비시즌과의 격차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. 이 격차를 좁히긴 해야 할 듯 하다. 비시즌엔 관심 없다 치더라도 그냥 시즌에도 정규시즌엔 그리 큰 관심이 없다.**
- \* 리그 시스템이 8개의 지구, 2개의 컨퍼런스로 나누었는데, 현재는 16경기에서 각 지구 우승팀 4개로 나누었고, 이들이 1~4번 시드로 간다. 그리고 각 지구가 우승이 아닌 상황에서 승률이 좋은 두 팀이 5,6번 시드로 편성된다.**
- \*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. 시즌을 길게 할 필요는 있다. 8월 부터 시즌을 시작하는 것이다. 8월에 1스테이지 4경기 - 9월에 1스테이지 4경기 스테이지를 편성한다. 10월엔 승률 좋은 8개의 팀이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. 어떻게 치르냐하면 1/8, 2/7, 3/6, 4/5 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위 팀이 지정을 하는 것이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8강을 치르면 4강에서 8강 이긴 팀 중에 제일 득 /실 마진이 좋은 팀이 지정을 하는 것이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승을 치르면 승자는 슈퍼볼 스테이지에 합류하는 것이다.**

## 7. 결론 - 리그 시스템을 바꾸자?

**\* 2주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블랙플라이 데이 부터 스테이지2가 시작이 될 것이다. 11월 2경기 - 12월 4경기 - 1월 2경기로 마무리 한 다음에 스테이지1과 같은 형식으로 1월 ~2월 초반까지 스테이지2를 마무리 한다. 그리고 올스타전을 치르고, 2월 4째주부터 3월 초까지 슈퍼볼 레이스를 치른다. 여기서 다음과 같다.**

**\* 스테이지 1,2 우승팀이 1팀일 경우 : 남은 전체 승률 상위 3개 팀이 슈퍼볼 스테이지에 합류한다. 그리고 스테이지 우승한 팀이 맞대결을 결정한다. 1위/4위, 2위/3위 이렇게 할 수 있고, 1위가 흥행을 돋구게 하기 위해, 1위/2위, 3위/4위를 할 수도 있고, 1위/3위, 2위/4위 이렇게 할 수 있다.**

**\* 스테이지 1,2 우승팀이 다를 경우 : 우승 2팀 중에서 승률이 높은 팀이 1번 시드를 가진다. 그리고 우승 팀 중 승률이 낮은 경우 시드권만 보장한다. 즉 4번 시드만 가지고 선택권이 없다. 2,3번 시드는 우승 못한 팀 중 승률 높은 두 팀이 가진다.**

**\* 그러면 리그에서 16전 전승 하고도 스테이지를 못따는 경우는? 2번 시드. 어쩌면 24경기를 치뤄야 한다. 최대 말이다.**